

## 2021년도 4회차 해외출판사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심사총평

2021년도 4회차 해외출판사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는 총 6개국 6개사 6건이 접수되었다. 언어권별로는 영어 1건, 프랑스어 1건, 독일어 1건, 그리스어 1건, 베트남어 1건, 태국 1건이며, 유형별로는 문학행사 2건, 문예지 2건, 기타 2건이었다. 다만 베트남과 태국 건은 심사자료 미비 및 계획변경으로 이번심사에서는 제외하였다.

4회차 심사대상은 총 4건으로, 미국 그로브 애틀랜틱(Grove Atlantic), 프랑스 마땅 까르르(Matin Calme), 독일 오이로파(Europa Verlage GmbH), 그리스 렘보스(Lemvos)이다.

이번 심사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이신 김알리사, 민음사 마케팅부 콘텐츠 기획팀장 조아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장 옥희정 이상 3인을 비롯하여 번역원 실무진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코로나 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하여 온라인(줌, ZOOM)으로 진행하였으며, 홍보사업 내용(기획안, 추진일정, 유사행사 개최 이력), 소요예산과 산출내역, 그리고 출판사 자체 부담률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총 4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1. [미국] 영역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언론홍보

o 박상영 작가와 도서를 퍼블리셔스 위클리애 소개하고, 이후 언론홍보에 대한 번역 사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출판인 대다수가 구독하고 있는 출판전문지에 작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된다. 미국은 파급력이 있는 시장으로, 번역원의 번역비 기준 요율에 따라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2. [프랑스] 마땅 까르르 한국소설 카탈로그 제작

o 20-21년 출간 또는 출간예정인 16종 내외의 한국소설 시리즈를 소개하는 카탈로그를 만들어 프랑스도서를 취급하는 국내외 서점 및 도서관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으로, 독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홍보자료라는 점에서 한국도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미스터리, 스릴러 등 장르소설가 프랑스에 꾸준히 소개되고, 프랑스 진출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지원하는데 전원 동의하였다.

### 3. [독일] 독역 황석영 『낮익은 세상』 북서클 이벤트

o 독일 내 최대 문학 커뮤니티인 LovelyBooks.de를 통해 『낮익은 세상』의 도서 추천 이벤트, 온라인 독서모임, 광고를 진행하는 건이다. 우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이벤트를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독자와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작비, 운영비 위주로 지원항목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4. [그리스] 그리스역 『구운몽』 아테네 북페스티벌 기념 홍보행사

o 그리스 렘보스 출판사에서 한국의 고전인 『구운몽』을 홍보하기 위해 그리스의 문학 전문 플랫폼인 Diastixo와의 협업을 통해 리뷰 기사 작성, 북트레일러를 제작하고, 아울러 아테네 북 페스티벌에도 참여하겠

다는 계획이다. 그리스는 한국과의 출판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와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원 요청액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지원하는데 심사위원 전원 동의하였다.

2021. 7. 16.

심사위원장 옥희정  
옥희정